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갈등과 화해 그리고 공존을 향한 “평화 개념” 맥락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 우분투(Ubuntu)와 진실과화해위원회(TRC)를 중심으로*

김광수**

1. 서론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 노벨 평화상을 3번이나 수상한 것은 역사적으로 남아공에서 평화가 위협을 받았으며 그에 상응하는 평화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표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앨버트 루툴리(Albert Lutuli)는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의장으로 반아파르트헤이트(anti-Apartheid) 운동을 주도하며 비폭력 불복종으로 인종차별에 맞서 싸운 공로로 196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아프리카 최초의 흑인이 되었다. 데스몬드 투투(Desmond Mpilo Tutu)는 케이프타운 성공회 대주교이며 TRC 의장으로 반아파르트헤이트 및 인권운동을 한 공로로 198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는 특히 인종차별의 상처를 화해와 공존으로 치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광수 2017a, 김광수 2017b). 1993년에는 넬슨 만델라(Nelson Rolihlahla Mandela)와 드 클레르크(Frederik Willem de Klerk)가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를 철폐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했다.¹⁾

남아공은 백인의 이주와 정착 그리고 식민지배와 더불어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실시되면서 인종의 우열이라는 악마적인 개념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남아공뿐만 아니라 남부 아프리카 역사에서 평화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김윤진·김광수 2013: iii, 김광수 2001a: 117).

역사적으로 남아공은 인종적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백인 지배 세력이 흑인을 비롯한 유색 인종의 피지배 세력들을 착취하거나 고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구조적 틀을 구축하였다. 지배와 착취에 필요한 각종 장치, 즉 법과 제도, 이데올로기 등이 국가권력의 힘으로 동원되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천부적인 인권보다 인종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폭력이었다. 당연히 이러한 폭력에 저항하는 흑인의 폭력도 발생하였으며 전자가 착취적 폭력이라면, 후자는 저항적 폭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남아공의 폭력적 인종차별은 개인주의에 기반한 소수 백인의 더 많은 사적 욕망을 실현하도록 사회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모순된 가치체계는 아파르트헤이트시기 이전부터 다수의 남아공 흑인과 유색인종들로 하여금 개인의 이익보다 확대된 공동체적 이익에 기반을 둔 가치체계를 필요로 했다. 이에 따라, 우분투(Ubuntu)는 (탈)아파

* 본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부) 재원의 한국연구재단 지원(NRF 362-2010-1-B00003)과 2017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교수, 이메일: afrikaans@hanmail.net.

1) <https://www.history.com/topics/nelson-mandela>(검색일: 2018.05.10.).

르트헤이트 시기에 지속적으로 남아공 사회의 인종차별적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하기 위한 독특한 평화 추구의 대안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다.

우분투는 '한 개인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 인간이 된다.'는 의미를 뜻한다. 우분투의 핵심적 가치는 비록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지만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상호 의존과 공존에 뿌리를 두고 있다. 탈아파르트헤이트 시기 우분투는 서로 다른 인종, 민족, 종교를 포함한 상이한 신념과 문화를 가진 남아공인에게 타자성을 수용하도록 호소했다. 이는 오랜 기간 억압, 차별, 폭력적 갈등과 저항으로 점철된 남아공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 남아공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을 향해 가기 위한 것이었다. 1994년 이후 '상대적 평화'가 도래할 수 있었던 것은 남아공 사회가 진실과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 이하 TRC)를 통해 다양성과 타자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한 우분투의 정신이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남아공만이 갖는 독특한 평화의 개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남아공의 평화 개념은 역사적으로 인종집단의 동등한 권리를 향한 투쟁, 그리고 화해와 공존을 향해 맥락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남아공 평화 개념에 대한 맥락화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백인의 이주가 시작된 1652년부터 1990년 사이로 백인에 의해 인종간 우열과 차별이 평화의 개념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대한 저항이 발생했다. 네덜란드계와 영국계는 1902년 앵글로-보어 전쟁(Anglo-Boer War : 1899~1902, South African War로 불리기도 함)²⁾ 이후 원주민인 흑인의 권리를 완전히 배제하여 이주민인 백인이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었다. 또한 1948년부터 1990년까지 아프리카너에 의한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 정책의 실시는 법에 의해 인종간 우열과 차별을 고착화함으로써 진정한 평화의 개념을 왜곡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1990년대 이후 아파르트헤이트가 철폐되면서 평화의 개념이 인종간 화해와 공존으로 맥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남아공의 평화 개념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표출되었는지 살펴보고 우분투 정신이 TRC를 통해 어떻게 맥락화되었는지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인종간 우열과 아파르트헤이트

남아공이 인종갈등을 겪게 된 것은 백인의 인종우월주의에 근거한 이주와 정착의 역사 때문이며, 영국계와 네덜란드계로 나누어진 백인 간의 경쟁 때문에 더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평화 개념은 백인과 흑인 및 비백인으로 나누어진 인종간 우열과 힘에 의한 지배 및 피지배 관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점철되었다.

남아공에 정착한 최초의 백인은 1652년에 들어온 네덜란드인들이었다. 그 다음으로 1688년에 프랑스의 위그노 교도들이, 1820년에는 영국인들이, 마지막으로 독일인들이 이주하였다. 그 외에 소수의 백인인종집단으로 유대인, 포르투갈인 그리스인, 이탈리아인, 그리고 '로디지아 백인(Rhodesian Whites)'으로 불리는 짐바브웨 출신의 영국계 백인들이 유입되었다. 이렇게 유입된 유럽계 백인들은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었는데 아프

2) 앵글로-보어 전쟁은 남아프리카전쟁(South African War)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아프리카너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제2의 독립전쟁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쟁의 원인은 남부 아프리카에 대한 영국의 팍스브리타니카(Pax Britanica) 식민정책 때문이었다. 1902년 5월 전후 처리를 위해 페르이너허(Vereeniging) 조약을 맺었다. 표면적으로 영국의 제국주의 식민 정책은 성공했지만 지속적으로 영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어려웠다. 더 중요한 것은 흑인은 정치적 권리 및 경제적 기회에 대한 그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했고 주인에서 노예로 전락했다는 것이다(김윤진·김광수 2013: 231-232).

리칸스어를 사용하는 백인(Afrikaner speakers : 주로 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프랑스 출신)과 영어를 사용하는 영국계 백인(English speakers)으로 나뉘게 되었다. 영국계 이외의 대다수 백인을 '아프리카너(Afrikaner)' 또는 '아프리카nder(Afrikander)'라고 불렀는데 '아프리카너'라는 호칭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아프리카너는 '농부'를 뜻하는 "보어(Boer)"인, "케이프(The Cape)인", 또는 "케이프 네덜란드(Cape Dutch)인"으로도 불렸다. '아프리카너'라는 용어는 20세기 전에는 '남아공에서 태어난 원주민(native of South Africa) 백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20세기에는 '아프리카너를 사용하는 사람'을 지칭하여 부르게 되었다(Saunders and Southey 1998: 9).

아프리카너의 민족적 정체성은 17세기부터 시작된 네덜란드계 백인들의 이주가 시작 될 때부터 여러 세기동안 역사적 사건 속에서 형성된 것이며 인종차별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 영국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 아프리카너들의 생존을 도모했던 대이주(Great Trek : 1835~1840년대 초), 트란스발 전쟁(Transvaal War : 1880~1881)³⁾ 그리고 앵글로-보어전쟁 같은 사건들은 아프리카너의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사건들이었다. 1948년 강력한 아프리카너 민족주의자인 말란(D. F. Malan)이 이끄는 국민당(National Party : NP)이 정권을 잡음으로써 그 동안 점진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인종차별정책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헌법과 법률로 출현하게 되었다(김윤진·김광수 2013: 37-39). 또한 1830년대에 영국의 통치를 벗어나 대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 개혁교회(Dutch Reformed Church)와 아프리카너스의 발전이 이들의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Kruger 1987: 23-24).

남아공 역사에서 네덜란드계와 영국계 백인의 분열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영국은 먼저 이주하여 정착한 네덜란드계 이주민들을 정복하고 영국의 언어와 문화를 강요했다. 그 결과 대이주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백인의 분열과 대립은 결과적으로 원주민에 대한 인종적 차별과 분리를 합리화하고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김광수 2001a: 120-121, 김윤진·김광수 2013: 37-39, Coetzee 1978: 240).

1834년부터 영국의 식민지배에 반발하여 케이프에서부터 아프리카너의 대이주가 일어났는데 이 사건으로 아프리카너의 민족주의는 더욱 강력하게 결속되는 계기가 되었다. 개척자(Voortrekkers : 앞서 간 여행자, 개척자)들은 자유와 독립을 원했으며 자신들의 믿음과 신념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Vatcher 1965: 8-9). 아프리카너는 대이주 결과 1852년 트란스발(Transvaal)과 1854년 오렌지 자유주(Orange Free State) 등 2개의 공화국을 건설했다. 남아공의 대표적인 역사학자인 판 야르스펠트(Van Jaarsveld)는 대이주를 통해 진정한 아프리카너 국가가 탄생했으며 아프리카너의 정체성을 형성한 시기라고 주장한다. 영국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언어와 종교, 도덕,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대이주를 하였으며 이러한 아프리카너의 국가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1961: 110-111).

아프리카너 민족주의와 영국 제국주의 갈등은 1902년 5월 아프리카너의 패배로 끝나게 된 앵글로-보어전쟁으로 그 정점에 다다랐다. 비록 아프리카너가 패배하였지만 전쟁을 통해

3) 1880~1881년 사이에 벌어진 앵글로-트란스발 전쟁(Anglo-Transvaal War)은 영국과 아프리카너 사이에 처음으로 벌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제1차 앵글로-보어 전쟁 또는 제1차 남아프리카전쟁이라고 하며 트란스발공화국의 독립 전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영국이 트란스발을 합병하겠다는 발표에 반발하여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아프리카너는 1881년 2월 마주바(Majuba) 언덕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1881년 프레토리아 회담(The Convention of Pretoria)에서 영국의 합병이 철회되고 '완전한 자치'가 주어졌을 때 아프리카너 민족주의는 최고조에 이르렀다(김윤진·김광수 2013: 222-223, Van der Merwe 1994: 3-5).

아프리카너 민족주의가 발전하였다(Hexham 1981: 6). 대이주의 정신과 함께 앵글로-보어 전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은 아프리카너 민족주의를 강화하였으며 미래의 '아프리카너 공화국'을 건설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프리카너들은 기독교 정신과 이념으로 굳게 무장되어 있었는데, 아프리카너들은 유일한 언어인 아프리카스어와 삶의 철학, 고유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운명을 지닌 선택된 민족으로써 신이 창조하였다고 생각하였다(Gilliomee 1987: 139-140).

그러나 앵글로-보어 전쟁이 끝난 후 열린 페르이어너형 평화 회의는 원주민인 흑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주었다. 영국은 앵글로-보어전쟁 이전까지 원주민인 흑인의 자유과 권리를 명목상으로나마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나 전후 처리 과정에서 아프리카너의 주장에 따라 흑인에 대한 보호를 완전히 포기하였다. 이후 남아공의 평화 개념은 아프리카너의 지배와 통치를 정당화하고 인종간 차별을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원래 주인이었던 흑인은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고 노예로 전락했으며 오히려 이주하여 정착한 백인이 정치적 주도권과 함께 주인으로써 지배하게 되었다(김윤진·김광수 2013: 237).

국민당은 1948년 선거 당시 인종문제에 대해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미래의 확고한 정치노선으로 채택하였다. '분리(separateness)'라는 뜻의 아파르트헤이트 개념은 1930년대 아프리카너 지식인들에 의해 제시된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아프리카너 학자들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아파르트헤이트의 이론은 아프리카너 브루더본트(Afrikaner Broederbond)⁴⁾와 아프리카너 민족주의 이념에 공헌한 네덜란드 개혁신교회의 영향을 받았다. 아프리카너가 중심이 된 이 교회는 구약을 신봉하였고 자신들을 '신에게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신의 예정설을 믿었다. 자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월한 인종이었고 자신들의 임무는 백인 문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김윤진·김광수 2013: 107).

또한 전쟁기간동안 독일의 나찌즘이 주장한 사이비 인종주의의 영향도 받았다. 아파르트헤이트 노선에 따르면 모든 민족은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신이 부여한 운명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각 민족은 순수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자유롭게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인종간의 결합을 포함해 인종 사이의 과도한 접촉은 관련된 인종의 내부 잠재력을 파괴하고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인종적 혼합에 대한 두려움과 인종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백인들의 결정은 아파르트헤이트의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었고 이는 심리학적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1929년 아프리카너스 브루더본트가 설립한 아프리카너스 문화조직연맹(Federasie van Afrikaanse Kultuurverenigings : FAK)에 의해 열린 1944년 '국민회의(Volkskongres)'에서 크론예(Geoffrey Cronje) 교수는 인종적 혼합이 인종의 퇴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너 시인 두 토이트(J.D. du Toit)은 종교적 견해 속에서 인종의 분리는 신의 의지이며 인종적 혼합은 신의 의지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이루어진 육체적, 사회적 분리는 백인들의 순수성을 지켜줄 뿐 아니라 흑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흑인들은 백인들의 문화적 독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문화적, 정치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토지와 자원의 차별적인 분배와 인종간 차별을 가져오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김윤진·

4) 아프리카 형제동맹(League of Afrikaner Brothers)으로 해석된다. 이 조직은 오랫동안 아프리카너 민족주의를 추구하던 매우 영향력 있는 비밀 단체로서, 아프리카너 공화국 운동이 확산되던 1919년에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아프리카너들의 통치와 지배를 유지시키고 국민당의 정책노선을 지지하였다(김윤진·김광수 2013: 264).

김광수 2013: 293).

1948년 국민당은 선거에서 승리하였고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은 남아공의 인구가 다양한 인종적 집단(*volke*)으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가능한 한 영토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가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모든 '*volk*'는 그들 자신만의 모든 것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논리였는데 결과적으로 아파르트헤이트는 다른 민족 집단에 대한 차별을 가져왔다(Degenaar 1978: 33). 이 시기에 아프리카너 민족주의자들이 중심이 된 국민당 정부는 세 가지 중요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1) 아파르트헤이트. (2) 아프리카너의 우월적 지배. (3) 공화국의 건설이었다. 이에 따라 아파르트헤이트는 백인들의 우월적 지위와 백인 사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고안되어졌다(Jooste 1991: 232). 아프리카너가 생각한 평화 개념은 인종간 우열에 따른 배타적인 아프리카너 민족주의를 유지하는 것이었으며 인종 정책에 관해 자유주의 이념에 따른 그 어떠한 개혁도 거부하였다.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실시된 시기에 인종과 계급차이가 일치했다. 상류층의 계급은 주로 백인들로, 노동자 계급은 흑인들과 칼라드들로 구성되었다. 급진적 남아공 역사학파(네오-막시스트 학파)는 계급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마르크스(Shula Marks), 트래피도(Stanely Trapido), 래가식(Martin Legassick) 등으로 대표되는 학자들은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남아공의 역사를 토착민들에 대한 정복, 박탈, 무산계급화의 하나로 간주했다. 특히 그들은 19세기 말 금과 다이아몬드의 발견 이후부터 남아프리카 경제의 상업적 농업, 광업, 그리고 산업부문에서의 자본주의자들의 발전을 연구했고, 남아프리카에서 인종과 계급차이가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20세기에 남아프리카 백인 자본주의자 계급과 흑인 노동자계급은 경제적, 정치적 힘에 있어서 주된 경쟁자들이었다. 이 두 계급들 사이에는 주로 소규모의 백인 부르조아 계급이 있었다. 백인노동자들은 흑인 노동자보다 특권을 누렸고, 노동자계급 보다는 주로 상공업에 종사하였다. 그들의 직업 안정도와 삶의 질은 흑인 경쟁자들에게 대한 차별적인 노동법으로 보호되었다(Du Toit 1981: 63).

급진적 역사학자들은 아파르트헤이트 정치-경제를 흑인 노동자 계급을 착취했던 국민당 정부와 자본주의자 계급의 담합으로 보았다. 값싼 흑인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흑인들의 보호지역이 불모지나 오지에 만들어졌는데, 이 반투 홈랜드(Bantu homeland)는 국가 속의 또 하나의 국가로 불렸다. 시골과 도시의 흑인들, 칼라드, 인도인들의 사회적 이동은 아파르트헤이트 법에 의해 제한되고 줄어들었다. 국민당은 흑인 노동자계급의 지위를 명백히 규정했다. 다시 말해서 도시지역에서 흑인들은 이주민들로 간주되어 졌고, 백인들에게 단지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수단이었으며 정치적, 사회적 권리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Du Toit 1981: 131). 결국 남아공에서 인종차별은 인종과 계급에 대한 불평등과 억압이 확장된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Du Toit 1981: 31-32). 급진적 역사학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1990년 이전 백인과 흑인의 관계는 아파르트헤이트 철폐를 위한 투쟁과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계급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인종차별은 자본주의의 산물이며 자본주의의 뿌리를 공격하지 않고서는 치유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Du Toit 1981: 452).

1948년 이후에는 백인 정권이 흑인 저항운동과 저항운동의 주체들을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말살하고 억압하였다. 남아공은 인종적 자본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흑인들에 대한 학살은 곧 백인 자본의 축적기제였다. 이와 같이 남아공에서의 학살과 폭력의 구조적 배경은 백인 자본의 축적, 인종차별, 흑인저항의 삼중주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학살의 기제는 총체적으로 물리적 폭력, 법과 제도적 폭력, 구조적 폭력, 개별적 폭력의 총체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었다(김영수 2001: 182).

결국 이 시기의 평화는 백인의 입장에서는 인종적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인종간 우열과 이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장치의 유지였으며, 흑인들의 입장에서는 인종간 동등한 평등과 권리를 위한 인종차별정책의 폐지로 이해되었다.

3. 평화 개념으로서 우분투(Ubuntu) 정신⁵⁾

3.1 우분투의 의미

언어학적으로 'Ubuntu'는 명사 접사 'u'와 '사람(person)', '인간성(humanity, humanness, personhood)'을 나타내는 명사 '-ntu'로 이루어져 있다(Kamwangamalu 1999). 이 용어는 남부 아프리카 은구니(Nguni) 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어에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다. 남아공과 보츠와나의 소토(Sotho)어와 츠와나(Tswana)어에서는 '보토(botho)'로, 탄자니아의 수쿠마(Sukuma)어에서는 '부문투(bumuntu)로', 콩고의 보가니(Bobangi) 어에서는 '보모토(bomoto)'로, 앙골라의 콩고(Kong)와 크웨세(Kwese)어에서는 '기문투(gimuntu)'로, 케냐 키쿠유(Kikuyu)어에서는 '우문투(umundu)'로, 우간다에서는 '우문투(umuntu)'로, 말라위에서는 우문투(umunthu), 모잠비크의 송가(Tsonga)어 츠와(Tswa/Xitswa)어에서는 '부문투(vumuntu)로 사용된다(Akinola and Uzodike 2018: 94).

<표 1> 우분투에 관한 속담(Mvuselelo 2009, Akinola and Uzodike, 2018: 94)

언어(국가)	속담	해석
소토어 (레소토, 남아공)	(1) Motho ke motho ka batho. (2) A botho bag ago bon ne botho.	(1)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 사람이 된다 (A person is a person by other people). (2) 당신의 행복을 사람들의 행복이 되게 하라(Let your welfare be the welfare of the nation).
줄루어, 코사어 (남아공)	Umuntu umuntu ngabantu(줄루어). Umuntu ngumuntu ngabanye bantu(코사어).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사람이 된다(A person is a person through or by means, of other people).
송가어 (모잠비크, 남아공)	Rintiho rinwe a rinusi hove.	한 손가락으로는 곡물을 집을 수 없다 (One finger cannot pick a grain).
치체와(Chichewa)어 (말라위)	Mwana wa nzako ndi wako yemwe.	다른 사람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이다 (Someone's child is your child.)
츠와나어 (보츠와나, 남아공)	Moeng goroga re je ka wema.	손님이 오면 우리는 당신을 통해 즐긴다/ 포식한다(Come guest, we feast through you).

라모세(Ramose 1999)는 우분투 정신은 반투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세네갈에서 "테랑가(Teranga)"는 집단적 환대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분투와 같은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우분투는 '당신의 고통은 나의 고통, 나의 부유함은 당신의 부유함, 당신의 구원은 나의 구원(your pain is my pain; my wealth is your wealth. Your salvation is my salvation)'이며 소토어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아를 획득한다(It is through others that one attains selfhood)'라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상처

5) 우분투를 상황에 따라 '철학', '이념', '정신', '가치체계' 등 여러 가지 용어로 기술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정신'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철학이나 이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우분투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는 모든 사람의 상처다(an injury to one is an injury to all)'라고 설명한다. 또한 누스바움(Nussbaum 2003)은 서아프리카에서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 느낀다. 나는 다른 사람과 춤춘다. 그리고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I feel the other, I dance the other, and therefore I am.)'라는 속담 역시 우분투의 개념과 상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분투는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으로 남도록 만들어 준다고 생각한다(Ubuntu, 30/07/2010). 우분투는 인간성으로 개인과 집단의 돌봄, 조화와 환대, 존중 등의 정신으로 설명할 수 있다(Mangaliso 2001: 26). 또한 기본적 가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외부인(outsiders)'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상호관계, 사리사욕의 억제, 인간성, 공존의 미덕을 강조한다(Graybill 2004: 1119, Mvuselelo 2009).

위의 설명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분투는 엘리트주의를 추구하는 현대 사회정치적 질서에 대항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우분투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존재하고 있는 고대 아프리카인의 형이상학적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 존재한다." 라는 말은 동정과 인류애에 기반을 둔 필수적인 인간의 미덕을 표현한다. 투투는 우분투는 인간이 되는 순수한 본질이라고 단정했다(Akinola and Uzodike, 2018: 94-95).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노동당 회의에서 아프리카인의 세계관인 우분투의 중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의 환경이 좋아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며 고문을 당하거나 학대를 받는다면 모든 사람들의 명예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투투가 주장한 우분투는 윤리적 책임은 공유된 정체성과 함께 나타나는 우분투 신학(Ubuntu theology)의 이념적 기초라고 설명했다. 투투는 만약 어떤 사람이 배고프다면 우리 모두 함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우분투는 우리는 인간 경험의 긴 사슬의 한 부분으로 과거와 미래 세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분투는 아프리카인의 세계관으로 최고의 전통이며 세상을 좀 더 이해하고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구의 문명은 인간을 개인주의화하고 경쟁적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철학인 우분투는 공동체주의로 남아공 TRC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BBC News, 28/09/2006).

우분투를 지키는 사람은 우호적이고 남에게 관대하고 긍정적으로 대하며, 남이 잘되고 좋은 일에 불안이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자신이 큰 전체에 속하고 있으며 남들이 굴욕을 느끼거나 명성이 떨어지거나 억압과 고통을 겪을 때 자신 또한 작아짐을 아는 것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적절한 확신을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Murithi 2006b : 28).

우분투를 서구의 언어로 표현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것은 인간됨의 본질을 뜻한다. "유 우 노분투(Yu, u nobuntu! : 이봐, 아무개가 우분투가 있어!"라는 말은 최고의 찬사다. 관대하고 호의를 베풀며 친절하고 다정하고 남을 보살필 줄 알고 자비롭다는 뜻이다.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내 인간성은 당신의 인간성과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다.", "우리의 삶은 여러 사람과 한데 묶여 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사람이 된다."는 말도 같은 뜻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다. "나는 속하고 참여하고 나누기 때문에 인간이다."라고 해야 마땅하다. 우분투가 있는 사람은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인격과 능력이 탁월한 사람 앞에서도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자신이 더 큰 전체에 속한 존재임을 아는 그에게는 온당한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모욕을 받거나 위축되거나, 고문이나 압제를 당하거나, 실제보다 못한 취급을 당할 때 자기 확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데즈먼드 투투 2009: 41-42, Tutu 2000: 31).

3.2 우분투와 공동체 정신

남아공의 전통 사상인 우분투는 개인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유럽의 사상과는 달리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 존재 가치가 공동체 속에서 실현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분투는 전통적인 아프리카 철학으로 우리에게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의 유대감이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 스스로 인간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으로 1994년 이후 새로운 남아공이 지향해야 할 인종간 화해와 공존을 위한 평화 개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념 또는 철학으로서 가치가 있다.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우분투는 심오한 아프리카인의 감정으로 타인의 인간성을 통해 오로지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것으로 이러한 태도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기초가 된다고 해석했다. 그는 우분투 사상을 통해 다른 집단 사이에 화해를 추구하고 이해를 해야 하며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Mandela 1997: 324).

압제자들은 학대받는 사람들처럼 분명히 자유로워야 한다. 내가 감옥에서 나올 때 나의 임무는 압제자를 해방하는 것이었다. 자유를 위해 단지 쇠사슬을 벗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향상시키는 것이다(Mandela 1944: 544).

아프리카 전통가치에 대한 권위자인 음비티(Mbiti 1969)는 우분투의 강조는 공동체에서 대부분 아프리카인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정신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런 정신은 모든 집단에서 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개인에게 모든 집단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삶은 공동체 속에 적용된다. 공동체가 개인을 생산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인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있다(I am because we are, and since we are, therefore I am)'라고 말한다(Graybill 2004: 1119). 인간성의 불가분성에 대한 우분투 정신은 용서와 화해를 위한 위대한 능력을 담고 있다(Akinola and Uzodike, 2018: 95).

하일레이는 우분투는 아프리카 인본주의/휴머니즘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서구의 철학적 견해로 본 것은 아니며 아프리카 인본주의에 관련된 예술과 행동으로 토착적인 과정으로 본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인간성이 더 넓은 공동체와 함께 합의에 의한 연대를 얻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Hailey 2008: 4). 블레이든(Blyden)은 우분투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인의 인격은 "영적(spiritual), 사회적(social), 공동체적(communal), 의견 일치(minded), 풍부한 감정(full of emotion), 리듬(rhythm), 감수성(sensitivity)"이라고 설명했다(Bongmba 2004: 293 재인용). 따라서 우분투는 평등, 정의, 공동의 지지, 돌봄으로 특징 지워지는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폭력을 싫어하고 평화적인 공존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의 문화를 활성화하는 과정이다(Akinola and Uzodike, 2018: 107-108).

우분투는 단결, 충성, 공동체의 결속과 집단소유를 함양한다. 모스(Moss 2010)는 '만약 당신이 공동체의 밖으로 내쳐 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만약 당신이 남아공에 있는 짐바브웨인이거나, 만약 당신이 남수단에 사는 남부 아프리카 출신이라면?', '만약 당신이 후투인이고 투치인이 아니라면?' 과 같은 실제적인 질문을 던졌다. 개인은 문화적 행위를 통해 존재 의미를 표출한다. 더구나 우분투는 공동체의 결속 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우분투 사상이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격화시킬 수도 있다. 이것은 타자를 분리하고 차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집단의 결속력에 대한 우분투

사상의 강조는 공동체의 비구성원에 대항하여 쉽게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예로 남아공과 다른 아프리카 국가의 외국인혐오증(xenophobia)을 사례로 들 수 있다(Akinola and Uzodike, 2018: 104-105).

모스(2010)는 또한 우분투가 집단 간 차이,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 사이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집단 내부의 차이나 편견의 수준이 외부의 위험, 분쟁으로 인해 결속을 강화하게 만들고 공동체의 극단적인 강조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우분투가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로우(Louw 2002: 3)는 아프리카 문화의 '전체주의적인 집단소유(totalitarian communalism)'라고 부르며 공동체 위에 개인을 두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다. 이러한 상황이 집단의 배타성을 통해 쉽게 민족적 갈등과 분쟁을 유발했고 특히 다른 비아프리카인, 비흑인 아프리카인, 또는 외부인으로 분류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Akinola and Uzodike, 2018: 105).

3.3 우분투와 평화 개념

우분투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무리티(2006b)는 우분투 정신에 대한 교훈은 중요하며 특히 평화구축 과정에서 대중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TRC에서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게 하고 화해를 얻기 위해 용서를 하는 것은 필수적인 단결/통합을 위해 중요하며 우분투가 주장하는 상호의존의 인간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분투는 세계화 속에서 변화를 수반하는 혼란에 대응하여 사회구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Mvuselelo 2009: 17). 또한 구조적 폭력이나 제도적인 폭력을 배제하며 억제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TRC에서 자진해서 증언을 하지 않았거나 잔악행위를 저질렀다고 증언한 사람들과 하지 않았다고 한 사람들에게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또한 'TRC가 열리는 동안 반항적인 행동을 했던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러한 사례들은 우분투 정신이 진정한 평화 개념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RC는 우분투 정신이 분쟁이후 상황 속에서 분쟁이나 폭력을 최소화하고 상처를 치유하는데 확고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Akinola and Uzodike, 2018: 105).

하일레이(Hailey 2008)는 타자에 대한 무관용은 외국인혐오증에 의한 폭력으로 나타났고 2008년 남아공에서 많은 외국인을 사망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키놀라(Akinola 2014)는 남아공 대학교에서 발생한 외국인혐오증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외국인혐오증에 의한 공격성은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타자에 대한 뿌리 깊은 불관용/편협은 식민지배자들이 '분리하여 통치'한 식민지 정책과 아프리카의 문화적 유산을 파괴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우분투 정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Akinola and Uzodike, 2018: 106).

국가에 대한 분쟁, 폭력 그리고 무장 폭동은 개인간 그리고 가정 폭력과 연결되어 현대사회에 널리 만연되어 있다. 이는 현대 사법체계와 사회의 가치 체계를 재검토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수입된 서구의 사법체계는 분쟁과 폭력을 막지 못했으며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집중하였다. 우분투의 정신은 사회적 분쟁과 폭력을 줄이고 아프리카에 부활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문화적 태도와 가치는 널리 퍼진 사회적 규범의 기초로서 개인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규정한다. 무리티(Murithi 2006b)는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문화적 교류를 하고 또 미래 세대에 전해줌으로서 문화적 태도와 가치를 스스로 재편할 수 있다고 보았다(Akinola and Uzodike, 2018: 108).

아프리카 학자들과 타보 음베키(Thabo Mbeki) 전 남아공 대통령이 주장한 “아프리카 문제에 대해 아프리카인의 해결(African solution to African problem)”이라는 표어에 맞게 외국의 가치체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존재하고 있는 자유로운 체제 속에서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사회·문화적 현실에 맞는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 프로젝트의 ‘길들이기/가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분투를 제시하고 있다(Akinola and Uzodike, 2018: 108-109).

하이레이(Hailey 2008: 2)는 아파르트헤이트 철폐이후 우분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했다. 많은 연구가 아파르트헤이트가 폐지된 이후 평화건설의 유용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반면 그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우분투의 특징과 유용성 그리고 아프리카 인본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에 대해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이레이는 결론적으로 우분투가 즉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2008: 13). 투투 역시 하이레이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우분투의 가치가 정의를 넘어 화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보복적인 정의를 넘어 부활 또는 복구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Graybill 2004: 1119). 마시나(Masina 2000)는 우분투는 아프리카 철학이며 자신과 다른 사람, 파괴와 창조, 선과 악 사이에 균형 잡힌 화해를 추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했다. 또한 이원론적인 반대, 즉 선과 악, 흑과 백, 자아와 타아 속에서 즉각적인 또는 임박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했다.

‘분리하여 통치’하는 식민지 전략은 다양한 아프리카 사회를 하나의 통합된 실체로 만들었고 동종의 공동체를 다양한 국가로 분할하였다. 이로 인해 나이지리아, 수단, DRC, 시에라리온 같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폭력적인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만들었다. 식민주의로 대표되는 서구 가치의 수출은 아프리카의 전통가치를 왜곡하고 우분투의 가치체계를 몰아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식민지배 이후 아프리카의 폭력적인 분쟁이 확산된 것이다(Akinola and Uzodike, 2018: 107).

독립 이후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폭력적인 분쟁을 경험하면서 분쟁해결과 평화건설을 위한 가능한 접근에 대한 탐색을 하였다. 다른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권력과 자원을 통제하기 위해 인종주의, 내전, 무장폭동, 테러, 민족분규, 인종학살, 외국인혐오증, 아프리카에 널리 퍼진 공동체간 그리고 가정 폭력을 일삼았다. 특히 오랫동안 식민지배 또는 외국의 지배를 받은 국가들은 상황이 심각하다. 평화와 안전에 대한 탐색과정에서 분쟁해결과 평화건설에 대한 토착적인 가치체계인 우분투의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Akinola and Uzodike 2018: 91).

나이지리아의 인종정치학적 폭력, 수단의 민족분규, 르완다의 집단학살, 콩고민주공화국의 자원을 둘러싼 폭력 등은 불관용과 증오가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되풀이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Akinola, 2011, 2014). 또한 우간다에서 신의저항군(Lord's Resistance Army : LRA)이 아이를 납치하여 소년병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Murithi 2006a: 11)은 사회구조를 파괴하는 행위로 우분투 정신인 아프리카 공동체주의에 기초한 문화적 친밀감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Akinola and Uzodike 2018: 92). 남아공은 아파르트헤이트 기간 동안 1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되었고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80,000명이 구금되었으며 26,000명이 고문을 당했다(Graybill 2004: 1117, Murithi 2006a:

10)“ 남아공은 수십 년간 지속된 아파르트헤이트 정부가 폭력을 지원하였고 그에 대한 폭력적인 대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지배권을 획득하는 가장 좋은 전략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아공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된 이후에도 폭력은 일상적으로 매일 발행하고 있다(Anne 2005: 139).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엘리트로 구성된 하나의 집단이나 민족 집단이 권력을 획득하고 자원을 모으기 위해 쟁탈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무리티(Murithi 2006a)는 식민주의가 아프리카 국가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지도력을 유산으로 물려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독립 이후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와 같은 식민지배의 유산으로 인해 분열이 지속되었고 긴장과 폭력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의 피의 다이아몬드, 나이지리아의 석유산업, 비아프라 내전과 민족적 분규, DRC의 자원, 르완다의 후투와 투치의 민족적 갈등, 남아공의 외국인혐오증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몇몇 엘리트에 의한 자원 점유는 결국 아프리카의 널리 퍼진 가난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식민지 및 식민지 이후 아프리카 국가는 악랄한 착취자가 되었으며 폭력적인 자원 분쟁을 생산 및 재생산하고 최악의 가난이 만연하고 있으며 민족적 공동체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Akinola and Uzodike, 2018: 92-93).

우분투는 아프리카의 사회·정치적 환경으로 특징 지워지는 폭력에 대한 토착적이며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장되었다(Dandala 1996, Mangaliso 2001). 평화를 얻기 위한 우분투의 유용성은 그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가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특히 평화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인간성, 공정함, 정의, 그리고 아프리카인의 가치체계를 보호하는 우분투는 식민지 이전 시기에 많은 아프리카 사회의 중요한 요소였으며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남아공에 필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Nyathu 2009). 무리티는 우분투가 과거의 상처, 증오, 의혹을 초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념이라고 주장했다. 아파르트헤이트 시기 이후 여전히 불안정한 정치적 질서를 극복하고 더 안정적인 상황으로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2006b: 26).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대한 탐색은 화해의 건설과 인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정의에 기반한 공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분투의 핵심사상이다(Murithi 2006b: 14). 우분투의 최우선의 목표는 사회적 단결을 위한 긍정적인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무리티는 사회적 단결은 사회구성원들이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동등한 인간으로 인식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았다. 우분투 정신은 개인의 안전과 행복은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달려있다. 남아공의 TRC는 우분투의 가치를 아프리카의 분쟁해결을 위한 대화의 중심에 놓았으며 아프리카인의 가치를 다시 불붙게 만들었다. 따라서 우분투의 개념을 파악하고 어떻게 그 이념이 아프리카의 분쟁 전환을 위한 진정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Akinola and Uzodike, 2018: 93).

4. 인종간 화해와 공존 - 우분투와 TRC

남아공의 인종, 언어, 종교, 계급 등에 따른 분열과 차별은 20세기에 들어와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정책의 시행으로 정점에 다다랐다. 특히 인종집단간의 깊은 분열은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폐지된 이후에도 올바른 역사의식과 국가의식이나 국민의식의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김광수 2001a: 108).

아파트헤이트의 가장 큰 잘못된 점 중 하나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과정 없이 남아공의 다양한 인종 집단을 획일화시켜 구별하고 차별했다는 것이다. 아파트헤이트는 인종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만을 강조함으로써 차별의식이 자리 잡게 했다(Dreyer 1989: 4-5). 남아공의 증오와 갈등으로 가득 찬 과거는 의심과 공포를 남겨놓았으며(De Jongh 1968: 146-147), 결과적으로 흑-백간의 갈등의 역사는 공통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작동하였다(Marcum 1982: 94-95). 이런 상황에서 1994년 아파트헤이트를 철폐하고 새롭게 출범한 남아공 정부의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다인종(multi-racial) 다문화(multi-cultural) 사회인 남아공에서 모든 인종 및 민족 집단이 서로 존중하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Madondo 1996: 18).

이에 따라 1994년 이후 무엇보다 중요한 남아공의 과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인종 갈등을 화해와 공존으로 이끄는 것이었다. 남아공은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TRC를 마련하였으며 우분투 정신을 기본 이념으로 적용하였다. 이는 남아공의 평화 개념이 인종간 평등에서 화해와 공존으로 전환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RC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에 국가에 의해 행해졌던 법질서와 사회경제적 체제에서 인간의 영혼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기본적인 인간성을 짓밟은 사실을 밝히는 것이 주요한 업무다. 우분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범죄 행동에 의한 피해를 바로잡는 것에 중점을 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을 지향하도록 했다(TRC 1998 vol 1: 125-126, TRC 1998 vol 5: 444).

TRC는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인종주의자의 통치로부터 민주주의를 향한 남아공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남아공의 변화는 타협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과거 아파트헤이트시기에 인권남용에 대해 사면을 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공의 TRC는 과거에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칠레의 TRC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남아공의 TRC는 국가건설과 화해에 기초한 사법의 '복구적인 모델(restorative model)'을 제시하고 있는데 진실을 말하게 하고 사면과 보상을 시행하는 유일한 제도이다(Mooney, K. et al. 1999 : 209-218). 이렇게 진실과 사면의 교환체제는 남아공 과거사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청산하려 했다는 점에서 존중되어야 할 내용이다. TRC는 인권 남용의 희생자들이 그들의 과거의 이야기를 공식적인 장소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집단적인 망각을 막았고 카타르시스적 경험을 맛보게 하였으며 희생자들과 가해자들에게 인권의 존귀함을 일깨워주었다.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TRC는 화해를 위해 노력했다. 오랜 시간동안 뿌리 깊은 인종적 갈등이 하나의 위원회를 통해 완전한 화해와 치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화해는 단순한 하나의 행사로 얻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과정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TRC는 최악의 사태로 갈 수 있는 인종간의 갈등을 화해와 공존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남아공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평화 개념을 정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김광수 2002: 61).

4.1 우분투 정신과 TRC의 접목

1998년부터 1999년 사이에 남아공 역사학과 학생들의 역사의식을 조사한 결과, 1994년을 남아공 역사의 중요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새로운 남아공의 변화에 대해 신중하지만 낙천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우선 1994년 이후로 정치 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부정적으로는 하나의 통일된 국가의식보다는 자신이 속한 문화집단에 더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며 타 문화집단에 대하여 이질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속한 문화집단에 자긍심이 부족하여 상반된 의식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파트헤이트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한 분열된 사회의 유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 다양한 집단들이 평화로운 공존이 아니라 투쟁과 분열의 과거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흑인들은 자유를 갈구했고, 백인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응했다. 백인과 흑인 두 집단 모두에 의하여 배제 당한 칼라드, 아시아인 및 인도인 등은 생존을 위해 투쟁했다. 남아공은 1994년 이후에도 여전히 과거와 마찬가지로 차별적인 계급의식과 인종적 불평등이라는 강한 의식을 경험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파트헤이트라는 차별제도는 철폐되었지만 부와 사회적 지위는 여전히 인종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문화 집단에 대하여 품고 있는 불만족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의식적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김광수b 2001: 229-231).

남아공 정부는 1996년 우분투로 묘사되는 복지에 대해 백서를 발간했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한 돌봄의 원리.... 그리고 상호 지원의 정신. 각 개인의 인간성은 이념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성의 인식을 통해 표현된다. 우분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개인과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각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Hailey 2008: 2).

비록 우분투가 철학적 이념으로 이해되지만 정치, 사업 또는 기업의 경영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Olinger et. al. 2007). 콤바(Khomba 2011)와 무리티(Murithi 2006b)는 우분투 정신은 아프리카에서 공공 경영을 위한 진정한 이념으로써 적용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에서 제도적 실패가 국가가 공익을 실현하는 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분쟁을 막을 수 없도록 하며 평화 건설에 대한 국가의 무능력을 야기한다고 본다. 콤바(Khomba 2011: 129)는 분쟁을 야기하는 소외, 박탈, 가난은 공동체의 형제자매 같은 관심, 즉 협력, 보살핌, 나눔을 강화하는 방법 속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분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익을 위한 개인 간의 협력으로 공동체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사람들 사이에 공유하는 것이다. 개인적 경쟁 본능은 공동체의 평화, 안전, 그리고 조화를 불안정하게 한다고 본다(Masina 2000). 망갈리소(Mangaliso 2001: 26)가 이야기 한 것처럼 우분투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체제에 내재된 최고 수준의 조화와 지속성이다. 이것은 인간의 상호의존과 상호관계의 규범, 이기주의의 억제, 공생의 미덕을 다시 강화시킨다(Akinola and Uzodike, 2018: 102).

우분투를 사용한 평화건설은 상호관계, 포용성/비배타성,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공유된 공동운명체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Murithi 2006b: 29). 이것은 용서를 주고 받고 복수의 필요성을 버리는 근본적인 이성의 가치체계를 제공한다. 우분투는 상처를 받은 분쟁이후 사회에서 평화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평화를 건설하는 법과 규칙에 대한 방향을 제공한다. 모스(Moss 2010)는 우분투는 분쟁해결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5가지를 제안했다. (1) 조사 이후 가해자는 책임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2) 가해자는 진정한 반성을 하도록

해야 한다. (3) 그들이 용서를 구하고 희생자들은 자비를 보여야 한다. (4) 범죄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을 요구한다. (5) 모든 당사자들이 화해를 받아들이도록 하며 과정을 명확히 한다 (Akinola and Uzodike, 2018: 102).

평화 정착 과정은 처벌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에 있으며 신속한 재판이 아니라 평화를 구축하고 치유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인의 존재론적 관점에서 살인은 살인자의 진정한 존재를 악화시키는 존재론적 단절을 일으킨다고 보았다(Praeg 2007: 138).

아파트헤이트 시기 이후에 남아공 정부는 TRC에서 우분투를 불공정, 불관용, 증오, 인권 남용, 그리고 아파트헤이트 정권이 저지른 비인도적 행위를 바로잡는데 적용하였다(Anne et al. 2005, Graybill 2004). 과거의 분쟁과 분열을 넘어서는 국가통합과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다(Gibson 2005: 344).

투투는 TRC에서 주장하는 용서와 사면은 우분투 정신으로 아프리카인의 세계관 또는 가치체계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조화, 친절함, 공동체는 모두 가치 있는 선이지만, 사회적 조화는 우리에게 숨뭍 보눔(summum bonum), 즉 최고선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추구해 온 이 선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모든 것을 역병처럼 피해야 한다. 분노, 적개심, 복수심, 심지어 치열한 경쟁을 통한 성공은 이 선을 쪼먹는다. 용서는 그저 이타심만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 상대방을 비인간화 하려는 것은 틀림없이 나도 비인간화한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회복할 힘을 얻고, 사람들을 비인간화하려는 모든 것을 이겨 내며 여전히 인간답게 살 수 있다(데즈먼드 투투 2009: 42, Tutu 2000: 31).

투투는 TRC를 이끌면서 화해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다. 그는 우분투 정신을 도입하여 압제자의 실수, 고백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죄를 뉘우치게 함으로써 희생자들이 쉽게 용서를 제안하도록 하고자 했다. 더 나아가 개인과 사회가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Graybill 2004: 1118).

투투는 더 나아가 우분투의 중요성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특히 남아공과 같은 분쟁 이후 사회에서 아파트헤이트의 지지자들이 잔인한 체제의 희생자였다고 주장했다(Gentes, 2011). TRC의 경험은 우분투가 사회를 결속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었으며, 공동체의 단절과 불화를 치유하고 구조적인 폭력을 바로잡고 깨진 관계를 복원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우분투는 남아공 사람들이 아파트헤이트 시기에 흑인 대다수를 나락에 빠뜨렸던 압제자에 대한 복수나 처벌 없이 불공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왔다(Akinola and Uzodike, 2018: 104).

4.3 우분투 정신을 적용한 TRC의 의의

남아공의 TRC는 인종간의 갈등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국가 및 사회의 통합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TRC의 활동은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역사의 징검다리(historic bridge) 역할이었다. TRC는 승리자가 패배자를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주사회를 구성원으로 받아 들이고 또한 미래의 정부를 구속할 책임규범과 기준을 확인하였다는데 대해 중요성이 있다. TRC를 통해 통치자들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역사에 의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김영수 2001: 207-208).

인간의 인권이야말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 가장 훌륭한 기구이기 때문에 인권사회의 정체성은 사회체제의 민주적 이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협약(social contract) 혹은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를 강화하는 것이다(김영수 2001: 211 재인용). TRC의 활동은 '인권사회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단순히 과거의 인권 침해사건에 대한 진상과 그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데 머무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통합의 디딤돌을 형성하려 하였다. "인권의식의 제고, 민주화의 신장, 평화공존, 성차별 극복, 가해자들을 새로운 사회로 재통합,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발전적 토대 마련 등이 주요한 목적이었다(김영수 2001: 210).

TRC는 과거 역사에 대한 '진실'과 '화해'의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TRC는 억압된 역사를 회복하고자 했으며 새로 출범한 남아공의 안정과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의 정착과 '무지개 국가'의 건설에 기여하였다는 데 있다. 즉 TRC는 과거의 역사의 '진실' 규명과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의미하는 '화해'를 위해 작동하였다.

TRC의 활동이 남아공에서 과거에 생성된 불평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국가 의식과 국민 의식의 재구성을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TRC가 진실을 밝힘으로써 일종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세우는 작업의 초석을 단단히 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TRC는 '새로운 남아공 건설과 더불어 새로운 국가 역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즉, 국가와 국민 모두가 과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 작업이었다(Williams 1999: 9).

두 번째로 중요한 TRC의 업적 중 하나는 우분투 정신을 적용한 화해였다. 국가적·국민적 화해는 TRC의 중요한 존재 이유였기 때문에 TRC에 관한 평가도 화해가 얼마나 성취되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TRC의 중요한 업적은 진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함으로써 치유를 가능케 했다는 점이다. TRC는 말을 통해 사실을 밝힘으로써 과거의 침묵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이해와 사회적 유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TRC는 피해자 중심의 역사 이야기를 듣게 하였고 진실과 사면을 맞바꾸는 독특한 접근법을 제시했다. 대중과 사회 앞에 화해를 위해 진실을 말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Mooney et. al. 1999: 210, Fourie 2000: 283, Statman 2000: 25).

TRC의 주 목적이 화해였지 징벌이나 보복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TRC는 진실을 구체화하고 제약하고 통제했다(Statman 2000: 24). 사회·심리학적으로 TRC는 분노와 복수보다는 용서와 화해를 주장했다. TRC는 사실상 강력한 용서의 윤리인 우분투 정신으로부터 우리나라에 화해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자 했다. TRC는 역사적 사실을 밝혀 정의를 '복구'하고 화해를 통해 사면과 보상을 통해 국가 건설을 하는 복합적인 방법을 제시했다(Mooney et. al. 1999: 213-215).

투투는 TRC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것은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삭감해준 것이 아니다. 대중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은 매우 큰 대가이다. 피해자들은 공식 토론회에 나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기회를 얻었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어떤 것이다. 가장 어려운 일은 기억하는 것과 잊는 것이다. 집단적인 기억 상실이란 의미에서 잊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법, 즉 과거의 무게와 짐으로부터 해방으로서의 방법이다(Elshtain 1997: 14).

세 번째 중요한 의의는 새로운 국가 건설을 지향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은 남아공의

변화에 대해 '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인종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던 집단이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화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새로운 국가 건설은 모든 집단을 화합하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가치를 제시하고, 일종의 '국가 의식'을 조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Mooney et. al. 1999: 210).

TRC 보고서는 인종적 적대감에 의해 '깊게 양분된' 과거로부터 벗어나 인권과 민주주의 및 화해 위에 건설된 새로운 미래로 국가를 이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즉 다리를 놓는 과정의 '일부'로 작동했다. TRC 보고서에 의하면, 이 '다리 건설'에 끼친 TRC의 공헌은 3개의 기본 단계를 포함했는데, 이것들은 '진실 발언'의 촉진, '책임의 수용', 그리고 그것에 관한 '국가적 화합'과 '화해'를 구축한 것이다(Mooney et. al. 1999: 211).

TRC의 용서와 치유 및 화해에 대한 주요한 도덕적 담론은 국가 건설이라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판적인 충고를 막았다는 것이다. TRC는 집단 사이의 적대감보다 화해가 국가 건설에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에 대해 모든 국민이 공통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TRC 최종보고서에서 남아공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버트 루툴리가 남아공의 비전은 "모든 아들과 딸의 집"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강조했다. 최종보고서는 화해의 길은 물질적 재건과 존엄성의 회복 둘 다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불평등과 공통의 인간성에 대한 존경의 회복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분투 정신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광범위한 구조적, 제도적 변화를 포함하며 부서지고 깨진 인간관계를 치유하는 것을 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드시 과거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 공동체, 국가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인간성의 배상/보상과 회복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TRC 1998 vol 1: 109).

아파트헤이트는 공통의 인간성에 대한 부정이었다. 흑인은 존경과 존엄을 받지 못했고 그것으로 인해 모든 남아공인의 존엄은 손상되었다. 새로운 헌법은 이러한 과거를 부정하고 모든 남아공인의 동등한 가치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과 보호는 새로운 정치질서의 시금석이며 새로운 헌법의 기초다.⁶⁾

최종보고서는 극악무도한 폭력과 범주는 우분투 정신을 망각한 것이며 우분투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1978년 ANC 무장조직인 "민족의 창(Umkhonto weSizwe : MK)에 의해 남편이 납치된 후 살해당한 일을 겪은 판더르 메르버(Susan van der Merwe)는 1996년 9월 23일 클레르크스도르프(Klerksdorp)에서 열린 TRC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나의 남편으로부터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 사람이 된다.', '사람은 단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사람이다.'라는 츠와나인의 속담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에 대해 이러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들의 생존은 각자에 대한 우리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바람은 각자 가진 무기를 버리도록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삶도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

6) S v. Makwanyane and another 1995 (3) SA 391, at para 310. 남아공 헌법재판소가 사형을 금지한 역사적인 판결로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참조할 것!<http://www.saflii.org/za/cases/ZACC/1995/3.html>(검색일: 2018.05.19.) / <https://heinonline.org/HOL/LandingPage?handle=hein.journals/tlr74&div=75&id=&page=>(검색일: 2018.05.19.).

의 삶은 역시 귀중합니다(TRC 1998 vol 1: 127-128).

5. 결론

평화를 향한 학문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평화연구에 대한 결과물들이 아무리 제도적으로 전파되고 대량 출판 되어도 평화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평화가 어떻게 파악되고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일 것이다. '평화'라는 용어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일률적으로 일반화시켜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이해할 필요가 있다(빌헬름 안센 2010. 106-108).

남아공의 평화 개념은 역사적으로 인종집단의 동등한 권리를 향한 투쟁, 그리고 화해와 공존을 향해 맥락화 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아파르트헤이트 이전에는 이주민인 백인인 흑인과 비백인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아파르트헤이트 시기에는 법을 통해 인종간 깊은 분열이 자리잡게 하였다. 1994년 이후 남아공은 인종차별정책 철폐와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하였으며 사회적, 경제적 민주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파르트헤이트 시기에 발생한 인종간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화해와 공존을 향한 새로운 평화 개념이 요구되었다. 남아공의 미래는 미국식 다인종·다민족·다문화 사회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인종·종족간 화합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통의 문화적 정체성과 국가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광수 2000: 81, 121-122, 126).

남아공 국민들의 우분투 정신에 대한 이해와 접근은 인종간 갈등과 이질적인 다문화 사회 속에서 평화와 공존을 이룩하기 위한 열망과 희망으로 투영되었다. 우분투의 가치는 화해를 이루어 내는 수단으로써 남아공 사회의 구전 전통에 내재되어 있다. 남아공의 흑인 공동체는 젊은이들에게 전통적 가치체계를 계승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우화, 수수께끼, 이야기 및 속담 등을 활용한다. 이러한 구전 전통은 개인과 집단의 상호연관성과 상호의존의 가치를 강조한다.

남아공의 우분투 정신은 분명히 그 가치와 유용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있는 곳에서 실제로 적용하거나 채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만약 국가 또는 기구나 조직 등이 우분투 정신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과감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분투 정신은 진실화해위원회(TRC)를 통해 잘 구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4년 이후 남아공은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얼룩진 과거사의 진상규명 그리고 이를 통한 민주주의 이행 및 공고화를 위해 인종간의 화해와 통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탈아파르트헤이트 시기 남아공의 흑인들은 과거 백인 정부에서 발생한 인권유린과 국가폭력 등 과거사를 밝히고 청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남아공의 TRC는 이러한 역사적 요구를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1995년 11월부터 3년 동안 성공적으로 과업을 마무리하고 1998년 최종보고서를 발행하였다. 역사적으로는 과거의 진실을 객관적 입장에서 규명하였고, 사회적으로는 흑인과 백인 간의 화해를 바탕으로 공존을 위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냈다. 즉 남아공의 TRC는 인종차별적 사회체제의 모순들을 응축하고 있는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인종차별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화해와 공존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TRC의 긍정적 성과는 남아공 사회에서 오랜 기간 열망되어 왔던 다수의 국민들이 지속가능한 화해와 용서를 통한 공동체적 그리고 국가적 치유를 추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TRC는 우분투 정신의 적용 및 발현이었으며 상호의존성, 공존, 포괄성 그리고 공동체적 운명의식을 통한 평화 구축을 시도한 중요한 역사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평화 개념의 역사적 맥락화라는 측면에서 남아공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 자신들의 지역사를 바탕으로 역사적 발전을 이끌어가는 아프리카인들의 능동성과 주체성을 보여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계사와 지역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아프리카사는 세계사의 일부로 재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남아공의 평화 개념에 대한 맥락화 고찰은 세계화 속에서 자신들의 로컬리티(locality)를 지키며 역사적 발전을 이끌어가는 아프리카인의 능동성과 주체성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역사는 아프리카중심주의(Afrocentrism)의 연구방법론에 따라 외부의 시각이 아니라 아프리카인의 시각에서 재인식되고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고의 주제는 중요하게 연구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1. 문헌자료

- 김광수. 2001a.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국가건설(nation-building) 그리고 아프리카너(Afrikaner)의 역할." 『아프리카 연구』 14: 107-204.
- 김광수. 2001b.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의식의 관계연구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학과 학생들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韓國아프리카 學會誌』 13: 185-238.
- 김광수. 200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가건설: 진실과 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 TRC)가 역사청산, 국민통합,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 기여한 역할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연구』 15: 29-80.
- 김광수. 2017a. "앨버트 루툴리(1960)." 이문형 편. 『평화를 만든 사람들 노벨평화상 21』, 154-175쪽. 경기도 과천: 진인진.
- 김광수. 2017b. "데스몬드 투투(1984)." 이문형 편. 『평화를 만든 사람들 노벨평화상 21』, 230-250쪽. 경기도 과천: 진인진.
- 김영수. 2001. 『화해는 용서보다 기억을 요구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주의의 역사·현실·미래』. 서울: 동인.
- 김윤진·김광수. 2013. 『남아프리카사』. 서울: 다해
- 데즈먼드 투투지음, 홍종락 옮김. 2009. 『용서없이 미래없다』. 서울: 홍성사.
- 빌헬름 안센 지음, 한상희 옮김. 2010.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5 평화』. 서울: 푸른역사.
- Coetzee, J.H. 1978. "Formative Factors in the Origins and Growth of Afrikaner Ethnicity." In Du Toit, B.M.(ed.) 1978. *Ethnicity in Modern Africa*, pp. 111-111. Boulder: Westview Press.
- Dandala, H. 1996. "Cows Never Die: Embracing African Cosmology in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In R. Lessem & B. Nussbaum (eds.). *Sawabona Africa: Embracing Four Worlds in South African Management*, pp. 69-91. Johannesburg: South Africa.
- De Jongh, M. 1968. "An Anthropological Theory of Social Autonomy: With Reference to the Heterogeneous Racial and Cultural, Ethnic Configurations of Southern Africa." M.A. diss., Port Elizabeth, University of Port Elizabeth.
- Degenaar, J. 1978. *Afrikaner Nationalism*. Rondebosch: University of Cape Town.
- Dreyer, L. 1989. *The Modern African Elite of South Africa*. New York: St. Martin's Press.
- Du Toit, D. 1981. *Capital and Labour in South Africa: Class Struggle in the 1970s*. London: Kegan Paul International Ltd.
- Elshtain, J.B. 1997. "True Confession." *New Republic* 217(19): 12-14.
- Hexham, I. 1981. *The Irony of Apartheid: The Struggle for National Independence of Afrikaner Calvinism Against British Imperialism*. New York: The Edwin Mellen Press.
- Jooste, C.J. 1991. "Partition as a Constitutional Option" In Van Vuuren, D.J. et al.(eds.), *South Africa in the Nineties*, pp. 227-257. Pretoria: HSRC Publishers.
- Khomba, J. K. 2011. "Redesigning the Balanced Scorecard Model: An African Perspective." Ph.D. diss., Pretoria: University of Pretoria.

- Kruger, P. 1987. "The Rise of Afrikanerdom." In Louw, L. and Kendall, F. 1987. *South Africa: The Solution*, pp. 18-29. Ciskei: AMAGIPUBLICATIONS(PVT)LTD.
- Louw, D. 2002. *Power Sharing and the Challenge of Ubuntu Ethics*. Stellenbosch: University of Stellenbosch.
- Mandela, N. 1994. *A Long Walk to Freedom*. Boston, MA: Little Brown.
- Marcum, J.A. 1982. *Education, Race, and Social Change in South Af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sina, N. 2000. "Xhosa Practices of Ubuntu for South Africa. In I. W. Zartman (Ed.) 2000. *Traditional Cures for Modern Conflicts: African Conflict "medicine"*, pp. 163-182. Boulder, CO: Lynne Rienner.
- Mbiti, John S. 1969. *African Religions and Philosophy*. London: Hainemann.
- Mvuselelo, N. 2009. "Ubuntu: Globalization, Accommodation, Contestation in South Africa." Ph.D. diss., Washington: American University.
- Nyathu, N. 2009. "The Ubuntu dialogue: Decolonising Discourse and Dualism in Organisation Studies." Ph.D. diss., Coventry: Warwick University.
- Praeg, L. 2007. *The Geometry of Violence*. Stellenbosch: Sun Press.
- Ramose, M. B. 1999. *African Philosophy through Ubuntu*. Harare: Mond Books.
- Saunders, C. and Southey, N. 1998. *A Dictionary of South African History*. Cape Town: David Philip.
- TRC(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South Africa). 1998.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South Africa, Report. Vol. 1*. London: Macmillan Reference Limited. <http://www.justice.gov.za/trc/report/finalreport/Volume%201.pdf> (검색일: 2018.05.18.).
- TRC(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South Africa). 1998.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South Africa, Report. Vol. 5*. London: Macmillan Reference Limited. <http://www.justice.gov.za/trc/report/finalreport/Volume5.pdf> (검색일: 2018.05.18.).
- Tutu, Desmond Mpilo. 2000.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 New York: Doubleday.
- Van der Merwe, C.N. 1994. *Breaking Barriers: Stereotypes and the Changing of Values in Afrikaans Writing 1875-1990*. Amsterdam: Rodopi B.V.
- Van Jaarsveld, Floris Albertus. 1961. *The Awakening of Afrikaner Nationalism: 1868-1881*. Cape Town: Human & Rousseau.
- Vatcher Jr. W.H. 1965. *White Laager: The Rise of Afrikaner Nationalism*. London: Pall Mall Press.
- Williams, D.E. 1999. "Liberating the Past from the Future, Liberating the Future from the Past: Race and Reconcili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New South Africa." Paper presented at the TRC: Commissioning the Past Conference,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Johannesburg, 11-14 June 1999.

2. 논문자료

- Akinola, Adeoye O. 2011. "Niger delta Crisis: The Nexus Between Militants' Insurgency

- and Security in West Africa." *Africa Security* 4: 46-61.
- Akinola, Adeoye O. 2014. "South Africa and the Two Faces of Xenophobia: A Critical Reflection." *Africa Peace & Conflict Journal* 7: 56-67.
- Akinola, Adeoye O. and Uzodike, Ufo O. 2018. "Ubuntu and the Quest for Conflict Resolution in Africa." *Journal of Black Studies* 49(2): 91-113.
- Anne, O. et al. 2005. "Women in South Africa: Intentional Violence and HIV/AIDS: Intersections and Prevention." *Journal of Black Studies* 35: 135-154.
- Bongmba, E. K. 2004. "Reflections on Thabo Mbeki's African Renaissance." *Journal of Southern African Studies* 30: 291-316.
- Fourie, J.A. 2000. "The Psychology of Perpetrators of 'Political' Violence in South Africa: A Personal Experience." *Ethnicity & Health* 5(3-4): 283-289.
- Gibson, J. 2005. "The Truth about Truth and Reconciliation in South Afric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6(4): 41-361.
- Giliomee, H. 1987. "The Beginnings of Afrikaner Nationalism, 1870-1915." *South African Historical Journal* 19: 115-142.
- Graybill, L. 2004. "Pardon, Punishment, and Amnesia: Three African Post-Conflict Methods." *Third World Quarterly* 25: 1117-1130.
- Hailey, J. 2008. "Ubuntu: A Literature Review." Paper Prepared for the Tutu Foundation, November 1, 2008, London, England.
- Kamwangamalu, N. 1999. "Ubuntu in South Africa: A Sociolinguistic Perspective to a Pan-African Concept." *Critical Arts* 13(2): 24-41.
- Madondo, T. 1996. "Harmonising Cultural Diversity in South Africa: The Role of Museums." *Southern African Museums Association Bulletin* 22(2): 17-18.
- Mangaliso, M. 2001. "Building Competitive Advantage from *Ubuntu*. Management Lessons from South Africa." *The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15(3): 23-34.
- Mooney, K. et. al. 1999. "The TRC: Commissioning the Past." *African Studies* 58(2): 209-218.
- Murithi, T. 2006a. "African Approaches to Building Peace and Social Solidarity."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trategies for Peace With Development in Africa, The University for Peace & the African Union, Addis Ababa, Ethiopia.
- Murithi, T. 2006b. "Practical Peacemaking Wisdom from Africa: Reflections on Ubuntu." *The Journal of Pan African Studies* 1: 25-34.
- Nussbaum, B. 2003. "Ubuntu: Reflections of a South African on our Common Humanity." *Reflections* 4(4): 21-26.
- Olinger, H. et. al. 2007. "Western Privacy and/or Ubuntu? Some Critical Comments on the Influences in the Forthcoming Data Privacy Bill in South Africa." *International Information & Library Review* 39: 31-43.
- Statman, James M. 2000. "Performing the Truth: The Social-Psychological Context of TRC Narratives." *South African Journal of Psychology* 30(1): 23-32.

2. 인터넷 자료

"Ubuntu" 30 July 2010.

<http://semesterincapetown.blogspot.kr/2010/07/umuntu-ngumuntu-ngabantu.html>

(검색일: 2018.04.17.).

BBC News. 2006. "All you need is Ubuntu." 28 September 2006.

http://news.bbc.co.uk/2/hi/uk_news/magazine/5388182.stm (검색일 : 2018.04.17.)

Gentes, K. 2011.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 Desmond Tutu 1999."

<http://www.kimgentes.com/book-reviews/2011/8/23/no-future-without-forgiveness-desmond-tutu-1999.html> (검색일 : 2018.05.03.).

Moss, Sigrun M. 2010. "Part III of Ubuntu: More or Less Conflict?"

<http://torontoreview.ca/2010/07/part-iii-of-ubuntu-more-or-less-conflict> (검색일: 2018.05.03.).

Nelson Mandela - <https://www.history.com/topics/nelson-mandela>(검색일: 2018.05.10).

S v. Makwanyane and another 1995 (3) SA 391, at para 310.

<http://www.saflii.org/za/cases/ZACC/1995/3.html>(검색일: 2018.05.19.). /
[https://heinonline.org/HOL/LandingPage?handle=hein.journals/tlr74&div=75&id=&page=\(검색일: 2018.05.19.\)](https://heinonline.org/HOL/LandingPage?handle=hein.journals/tlr74&div=75&id=&page=(검색일: 2018.05.19.))

<국문요약>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갈등과 화해 그리고 공존을 향한 “평화 개념” 맥락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우분투와 진실과화해위원회(TRC)를 중심으로

남아공의 평화 개념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인종집단의 동등한 권리와 화해 그리고 공존을 향해 맥락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남아공은 인종적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소수의 백인 지배 세력이 다수의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인 피지배 세력들을 착취하거나 고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구조적 틀을 구축하였다. 백인은 지배와 착취에 필요한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법과 제도를 통한 국가권력을 이용하였다. 아파르트헤이트 이전 시기에는 이주민인 백인이 원주민인 흑인과 비백인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1948년부터 1994년 사이에는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정책을 실시하여 인종집단 간 깊은 분열이 자리 잡았다. 1994년 이후에는 인종·민족집단 간의 화합과 공존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었으며 평화 개념은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국가 및 국민의식을 만들기 위한 공존이 핵심적인 목표가 되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남아공의 폭력적인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정책은 인종우월주의에 기반한 소수 백인의 욕망을 실현하도록 사회체제를 만들었다. 이러한 모순된 가치체계는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과 함께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가치체계를 필요로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분투는 (탈)아파르트헤이트 시기에 지속적으로 남아공의 인종차별과 그에 따른 갈등을 치유하는 독특한 평화 추구의 대안으로 이해되었고 진실과화해위원회(TRC)를 통해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분투는 ‘인간성(humanity)’을 뜻하며 ‘한 개인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 인간이 된다(A person is a person by other people).’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우분투 정신은 비록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지만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상호의존과 공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아프리카인의 가치체계이며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탈아파르트헤이트 시기 우분투는 서로 다른 인종, 민족, 종교를 포함한 상이한 신념과 문화를 가진 남아공인에게 타자성을 수용하도록 하였고 그러한 정신이 TRC를 통해 표출되었다. 이는 오랜 기간 억압, 차별, 폭력적 갈등과 저항으로 점철된 남아공을 치유하고 남아공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공존으로 가는 길이었다.

본고에서는 남아공의 평화 개념이 어떻게 우분투와 TRC에 의해 맥락화 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Abstract>

A Historical Review on the Contextualization of "Peace Concept" for the Ethnic Conflict,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of South Africa: Focusing on Ubuntu and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peace in South Africa has historically been contextualized towards the equal rights,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of ethnic groups. In South Africa, under the racial capitalist system, a small number of white rulers have constructed a structural framework that exploits or continues to create suffering to the black majority and other colored people. The whites made ideologies necessary for domination and exploitation, and used state power through laws and institutions. In the pre-apartheid era, the migrant white people violated the rights of indigenous Africans and non-white people, and between 1948 and 1994, apartheid racial discrimination policies were implemented to deepen divisions among ethnic groups. Since 1994, harmony and coexistence among racial and ethnic groups have become the most important issue. The concept of peace has become a key goal of coexistence to create a nation and people's consciousness while respecting cultural and ethnic diversity.

Under World Capitalism, South Africa's violent apartheid racism has created a social system to realize the desires of a few white people based on racial supremacy. This contradictory value system required a value system for the benefit of the community rather than the individual with the anti-apartheid movem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Ubuntu was understood as an alternative to the unique pursuit of peace that heavily rescues South Africa's racial discrimination and conflicts in the (apart) apartheid era, and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 It can be said that it is implemented through.

Ubuntu means 'humanity' and can be expressed in the words 'A person is a person by other people'. Although the Ubuntu philosophy recognizes and accepts differences, it is a value system and a worldview of the African people who are rooted in interdependence and coexistence stemming from community consciousness, rather than individualism. During the post-apartheid period, Ubuntu made South Africans with different beliefs and cultures, including different races, peoples, and religions, to accept the otherness and that spirit was expressed through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 This was a path to coexistence with the recognition of the diversity of South Africa and the healing of South Africa, which has long been stifled by oppression, discrimination, violence and resistance.

This article will examine how the concept of peace in South Africa was contextualized by Ubuntu and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

<Keywords>

Peace, Ubuntu,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TRC), South Africa.

평화, 우분투, 진실과화해위원회(TRC), 남아공